논어 16편 계씨 3장 · 원문·풀이

孔子曰：「祿之去公室，五世矣。政逮於大夫，四世矣。故夫三桓之子孫，微矣。」

독음 · 공자왈 록지거공실 오세의 정체어대부 사세의 고부삼환지자손 미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노나라의 권력이 공실에서 대부로 옮겨 간 세대를 짚으며, 삼환 집안의 후손들도 차츰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祿 복 록 록

之 갈 지 / 去 갈 거 거 / 公 공변될 공 공 / 室 집 실 실

五 다섯 오 오 / 世 세상 세 세 / 矣 어조사 의 / 政 정사 정 정

逮 미칠 체 체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大 클 대 대 / 夫 지아비 부 부

四 넉 사 사 / 故 옛 고 고 / 三 석 삼 삼 / 桓 푯말 환 환

孫 손자 손 손 / 微 작을 미 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